

한중FTA 과수·채소 10년 피해액 12조

황주홍 의원, 한미FTA 15년 피해액과 맞먹어

한·중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될 경우 배·고추·인삼 등 13개 과수·채소 품목의 10년 피해액은 최대 12조원으로 한·미FTA 농업분야 15년 피해 추정액과 맞먹는다는 조사연구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24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15개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9월30일 자로 나왔지만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농협경제연구소의 ‘한중FTA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인삼·고추·배 등 13개 과수 및 채소의 피해액이 연간 최소 7000억~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로 추정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공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10년 당시 관세수준에서 중국산 채소류의 국내 판매가격은 국산의 37~137% 수준이나, 한중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산 가격의 20~98%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예상을 근거로 관세율이 100% 미만인 품목은 관세 완전 철폐, 100% 이상 품목은 50%를 감축하는 ‘시나리오 1’을 가정할 경우, 생산액은 지난 2006~2008년 3개년 평균 생산액 대비 최대 약 794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율 구간에 상관없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나리오 2’를 가정할 경우, 생산액은 최대 약 1조206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예상 피해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고추·마늘·양파·인삼 등 4개 품목의 최대 예상 피해액은 약 7500억 원에 이르고 사과·배·감귤 등 주요 과일류의 피해액은 약 2600억원으로 총 예상 피해액의 62.2%, 21.6%를 각각 차지하게 된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농협은 한중FTA에 따른 농업 전 분야 피해액을 10년간 24조원으로 추정해 왔으나 곡물은 물론 죽·수·임산 분야를

제외한 피해액이 최대 12조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봄농협이 피해주장을 최소화로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협이 2년 전에 이미 한중FTA 피해 규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발표하지 않고 쉬쉬한 것은 농민단체로서의 농협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연구내용이 일부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중FTA 농업분야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운태)는 24일 광주시청에서 12만 지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공동 추진할 31개 50여개 대학·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U대회 지원봉사자 12만명 양성

광주시-대학·기관 업무협약 체결

2015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운태)는 24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U대회 성공 개최를 견인할 12만 지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대학을 비롯한 지원봉사관계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U대회 조직위 김윤석 사무총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광주·전남·북 23개 대학 총장, 시·구 지원봉사센터장 등 31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U대회 조직위원회는 지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강사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재반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또, 시교육청과 대학, 지원봉사센터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봉사자 모집·홍보와 학사관리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게 된다.

내년 1월 시작될 지원봉사교육은 2015년까지 12만 명의 지원봉사자 육성을 목표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며, 교육과정을 통해 지원봉사자의 직무내용 숙지와 현장 대처능력을 배양시켜 대회성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김윤석 사무총장은 “지원봉사교육을 통해 대회에 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민과 청소년에게는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쌓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길러진 역량은 대회 성공은 물론 우리 광주에 훌륭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개시 직전 중국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이 24일 오후 1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특검팀은 “입국 시 통보 요청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이 회장의 입국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검 오늘 이시형씨 소환

이상은씨 소환일정 조율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25일 오전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24일 “내일 시형씨를 소환해 충분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개시 직전 중국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이 24일 오후 1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특검팀은 “입국 시 통보 요청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이 회장의 입국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주택

△동구 소태동 준주거지역 5층상기주택 대지561㎡ 건물1440㎡ 감정가12억4천 최저가8억7천 △서구 치평동 역세권 5층상기주택 대지230㎡ 건물716㎡ 감정가7억5천 최저가5억2천

단독주택

△북구 용봉동 용봉IC인근 2층단독주택 대지160㎡ 건물193㎡ 감정가1억1천3백 최저가7천9백 △남구 복립동 2층주거지역 단독주택 대지251㎡ 건물152㎡ 감정가1억9백 최저가7천6백 △남구 칠석동 주거지역 단독주택(전원주택적 합) 대지505㎡ 건물140㎡ 감정가1억3백 최저가8천2백 △장성 활동면 관리지역 단독주택 대지823㎡ 건물235㎡ 감정가1억1천 최저가7천8백

공장

△북구 용전동 대지2315㎡ 건물1543㎡ 감정가 22억7천4백 최저가18억2천 △장성 동화면 대지6300㎡ 건물1365㎡ 감정가 14억2천 최저가6억3천5백

토지 매매

△동구 내남동 주거지역 도심근교(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750㎡ △무안 해제면 계획관리지역 마을내 전망 좋음 전3643㎡ 전3643㎡ 전3643㎡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탑공인증개사

(서구 광천동 650-205 대림6-편 한세 상아파트 후문)

광주전역 원룸 매매 전문

서·광산·남·북·동구지역 금매물건 다량확보

1)화정동, 4층, 신축, 원룸, 대지300㎡, 건물600㎡, 원룸8세대, 투룸6세대, 최고급안전(40평형), 상가2칸, 엘리베이터, 매9억(보증금 3500만원)/월세550만원, 용지2억5천만원)

2)백운동, 4층, 신축, 원룸, 대지317㎡, 건물568㎡, 원룸8세대, 투룸5세대, 상가1칸, 최고급 안전(52평형), 매7억8천만원(보증금3000만원)/월세600만원, 용지2억2천만원)

3)백운동, 5층, 원룸, 대지315㎡, 건물605㎡, 엘리베이터, 상가1칸, 원룸2세대, 투룸2세대, 쓰리룸3세대, 투룸2세대, 최고급안전(52평형), 매9억(보증금7500만원)/월세1300만원, 용지15억)

4)풍암동, 4층, 신축, 원룸, 대지315㎡, 건물605㎡, 엘리베이터, 상가1칸, 원룸2세대, 투룸2세대, 쓰리룸3세대, 투룸2세대, 최고급안전(52평형), 매9억(보증금7500만원)/월세700만원, 용지3억)

5)신안동, 4층, 원룸, 대지340㎡, 건물910, 상가1칸, 원룸33세대, 상업지역, 매9억2천만원(보증금17000만원)/월세850만원, 용지3억)

062)368-0789
010-3671-7145

금당공인증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건물매도

- 오치4거리 대로변 7층건물 대지 819㎡(269평) 건평71.5평 학원용 건물로 적합 16억
- 대인동 원룸 건물 대지42평 4층 건물 95평 안전은 별도 원룸 11개 대출1억2천 매도 2억3천3평
- 계평동 재개발지역 2층 주택 대지300 건평 32평 7천
- 충장로 슈퍼, 대지 27 건평 30 공시가 1억9200평 1억7천7
- 시내 LPG충전소 대지 1014 대출 11억5천 매도18억
- 유동 상업지역 원룸 대지 928㎡(280평) 건평 7층 건물 1487㎡(152평) 매도34억
- 오양동 원양빌딩 7층 건물 1487㎡(152평) 매도34억
- 오양동 원양빌딩 7층 건물 1487㎡(152평) 매도34억
- 충장로 슈퍼, 대지 27 건평 30 공시가 1억9200평 1억7천7
- 북구 우산동 대지1000평 건평412평 대출6억 보증금 8천에 월세는 900만원은 매도10억
- 쌍촌동 운천역 3분 투 19평(주택, 옥탑방) 월수익 750만원(보증금 8천, 월3억)
- 조대후문 1분 투 16평(주택, 옥탑방) 월수익 650 매가 7억2(보증금 8천, 월2억5)
- 전대후문 1분 투 14평(주택, 옥탑방) 월수익 500 매가 6억(보증금 5천, 월1억5)

임대

- 금남로 대로변 가구집 60평 3천에 150, 비품대있음
- 금남로 5가 대로 2층과 5층 50평씩 조건은 협의함
- 금남로 대로변 100석 월수익 600(보증금 5천, 월250)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용센터 옆

정연한 논리 내세워 송곳 질문… 대안 제시도

■ 국감인물-김승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외유내강형’이다. 부드러운 이미지지만, 또박또박한 말투와 정연한 논리를 바탕으로 솔직 질문을 던지며 피감 기관들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 더욱 그렇다.

그는 또 “농협이 2년 전에 이미 한중FTA 피해 규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발표하지 않고 쉬쉬한 것은 농민단체로서의 농협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연구내용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중FTA 농업분야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23일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



리가 허술해 1만 3526곳 중 57%인 7756곳이 노후시설로 전락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해온다. 뒤에 관리기반시설에 대한 DB화를 통해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감과 관련해 22일 연 협력 기관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모은 뒤 이를 품질 있게 주제를 정한 316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23일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

을 상호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초선이지만 이 의원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관료들과의 논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피감기관 관계자들도 비록 김 의원의 질의에 훌륭하지만 쉽지 않은 표정이다. 광순하며 예의 바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감과 관련해 22일 연 협력 기관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모은 뒤 이를 품질 있게 주제를 정한 316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23일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

을 상호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1인당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것은

해부터 도입된 선상투표다. 모두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최대 예상인원인 1만3000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해도 1인당 15만3846원이 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선 투개표 비용 2363억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한 투표를 행사할 19세 이상 유권자 4052만8052명의 투·개표 등에 들어갈 예산은 총 2363억원이다.

국내 유권자 1인당 투표하는 데

5830원이 드는 셈이다. 국내 부자자 투표자나 거소 투표자는 부자자 투표율 4052만8052명의 투·개표 등에 들어갈 예산은 총 2363억원이다.

재외국민은 투표 등록자 22만3557

명에게 책정된 예산이 212억원이기 때문에 1인당 9만4830원이 소요된다.

1인당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것은

해부터 도입된 선상투표다. 모두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최대 예상인원인 1만30